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바람직한 교육환경과 교육

교육환경은 물리적인 시설자료 환경과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육환경을 들 수 있다. 교육 환경에는 바람직한 긍정적 방향의 변화를 주는 환경과 안 된다는 부정적 변화를 주는 환경이 있다. 고장 난 시설환경은 은연중 부정적 교육환경이 돼 부정적 인성 형성이 되게 하며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칭찬은 긍정적 심적 환경이고 꾸중과 비판은 부정적 심적 교육환경이다.

맹모 삼천지도(三遷之教)란 말이 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가르치면서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세 번 이사했는데 첫 번째는 묘지가 많은 공동묘지 부근이었는데 놀이하는 것이 상여 놀이를 했으며 두 번째 이사한 곳은 저잣거리 부근인데 장사꾼들의 손님 호객 놀이를 했으며 세 번째로 간 곳은 서당 부근인데 날날 새면 글 읽는 흥내를 내면서 글공부에 접근했다는 이야기다.

인간이 어떤 환경에 접하면 그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그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해갈 것을 바라는 활동이 교육 활동이다. 이러한 인적 물적 교육환경 시설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사람이 가정에서는 부모며 학교에서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바람직하지 못한 나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교육의 근본 뜻이 아니다.

교육환경에는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 환경과 할 수 없다는 부정적 환경으로 구분되며. 교육환경은 바람직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긍정적 환경이라야 한다. 교육환경은 인적 환경과 물적 환경이 있는데 인적 환경은 학생과 접하는 교사를 비롯한 친구와 이웃 사람과의 만남의 환경이고 물적 환경은 학생이 보고 만지고 활용하는 시설환경 자료를 말한다.

시설환경이 고장 나고 작동이 잘 안되는 것은 부정적 환경이다. 잘 열리지 않는 교실 출입문, 깨어진 유리창, 깨어진 거울, 쓰레기가 널려진 주변 환경, 불결한 화장실, 고장 난 벽시계, 비포장도로 등은 부정적 교육환경이고 집안에서 정선되고 정리된 집안 생활 도구, 학교에서 아름답게 잘 꾸며진 꽃밭, 잘 열리는 출입문, 고장 나지 않은 실험기구, 깨끗한 화장실 등은 긍정적 환경이다.

학생이 공부하는 곳에 부정적 환경이 있으면 긍정적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 깨진 유리창을 방지하고, 잘 열리지 않는 출입문을 방지하면 학생의 생각에 잘 안 될 것이라는 선입견을 주는 동기가 되며 그런 인성으로 변화를 준다. 인적 환경에서의 부정적 환경은 부모나 교사의 불친절과 꾸지람, 난폭한 언행, 친구로부터 따돌림, 이웃 사람과의 어울리지 못함, 웃음이 없는 분위기 등이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열등감, 저항심, 무기력 우울증이 생겨 나쁜 길로 빠

지게 된다.

긍정적 인적 환경은 부모나 교사의 칭찬과 격려, 웃는 얼굴과 웃음, 이웃과의 친교, 서로 돕는 친구 등은 희망적이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 그러므로 교육 환경은 물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인적 환경은 학생이 본을 받고 닮아가는 인성이 길러지므로 교육에 임한 사람은 항상 긍정적 인적 환경으로 학생과 만나야 한다.

교육은 학생이 경험해야 할 내 용인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공부하는데 지식 정보를 습득해 지식 인이 되고 바른 인성을 습득해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거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교과 과정, 반공 도덕 과정, 특별활동 과정으로 뒀다가, 교과 과정, 도덕 과정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교과 과정, 창의 학습 과정으로 바뀌었다.

도덕인 육성을 위한 도덕 과정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다른 곳에 통합됐을 것으로 보는데 바른 인성 육성을 위한 도덕교육이 경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교에서 먼저 할 것은 도덕적인 사람이 된 다음에 지적인 사람이 되어 합은 초등학교 1학년 입문기 교육이 인 사하는 도덕교육부터 시작함에서 보아야 한다. 교육은 도덕적 지적 으로 유능한 인간 형성 활동이 교육환경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해 새로운 인적 물적 좋은 교육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독자기고

봄철 건조한 날씨 속 산불 발생 우려 높아

박준호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봄철은 따뜻한 기온과 강한 바람·낮은 습도 등 화재에 최상의 조건을 가진 기후적 특성이 있다. 또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습도가 낮을때가 많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라도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

올해 첫 대응 3단계가 발령된 경남 합천 산불 진화 이틀 만에 하동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에서도 대형 산불이 나 22시간여만에 잡혔다. 지난해부터 급증한 산불 주원인으로 입산자 실화나 영농 폐기물 소각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봄철 산 불화재의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 쓰레기소각과 같이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등산객 및 영농인 들의 각별한 주의와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산불은 한번 나면 걷잡을 수 없이 급속하게 번져 초기진압이 힘들지만 조금만 신경 쓰고 조심한다면 충분히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산불예방의 첫걸음은 성냥이나ライター 등 화기물 소지 금지다. 산행 시에는 흡연을 금지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은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농촌 들녘에서는 산

림과 인접된 곳에서 농작물의 병충해 방제를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농촌진흥청의 발표에 따르면 논·밭두렁 태우기는 오히려 병해충 방제 효과를 떨어뜨려 '뚝'보다 '실'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산림 내 취사 및 흡연 등은 일체 금지하고 산림 근접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산불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신고 후에는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화재장소보다 낮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불길에 휩싸일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해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하며 대피 장소는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이나 나뭇가지를 치우도록 한다. 그 후 외투나 돗자리로 얼굴과 몸을 덮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불길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한다.

화재예방은 작고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관심 갖고 챙기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국민들이 산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느끼며 자연을 사랑해 산불예방에 대한 각별한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2023학년도 새 학년 새 학기 교육이 시작됐다. 새것이란 인적 물적 환경과 사회 조직이 바뀐 것을 말한다. 바뀌지 않은 것은 새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을 교육하는 교육환경은 새롭게 바꾸어 새 학년 새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교육은 인간유기체가 환경과의 교호작용(交互作用)에 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교육 환경은 바람직한 긍정적 환경이어야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없는 것은 교육 활동이라 할 수 없다.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장	황일봉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사장	이문수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이기영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부사장	기백관				
취재본부장	서용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REENFIBROOMEYE

그린피브로디엠아이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